

WINTER 2009

또 하나의 Vol. 49
나 우리

www.plankore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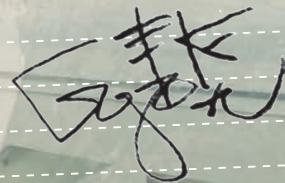
행복을 주는 사람!!

플랜코리아를 통해 가독이 되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김동진입니다. 저는 이번에 플랜코리아와 김동만 사진작가의 2009 아프리카 아프리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케냐를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린이들과 음악을 함께 나누며 이렇게나마 플랜코리아의 가독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아프리카가 희망의 땅이라고도 하고, 다른 누군가는 절망의 땅이라고도 합니다. 저에게 케냐는 그 두 가지 모두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녹지가 푸르른 근교와는 달리 오랜 가뭄으로 시달리고 있는 끝없는 황야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기 전까지는 그저 녹지와 황야의 차이가 희망과 절망의 차이로만 느껴져 서글펐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제가 진심을 다해 아이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건, 그것은 음악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전통 타악기로 음악을 연주하며 아이들과 저는 서로 감정을 나누고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아이들과 음악을 나누고, 김동만 작가의 사진을 나누고, 이은결 씨의 마늘을 나누고, f(x)의 밝은 웃음을 나누고, 고려대학교의료진의 의술을 나누며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 이 아이들이 있는 곳, 이 곳이 바로 희망이 있는 곳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가뭄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지언정 우리들을 둘러싼 아이들의 까망고 둥그란 눈들은 호기심으로 가득했고 역동적인 생명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아이들의 눈망울을, 이 아이들의 웃음을 감히 쳐버릴 수 있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안고 사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시는 플랜코리아 가독 여러분, 아프리카 아이들과 희망이라는 끈으로 맺어져 있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진심으로 느낍니다.

2009년 12월 김동진 드림



또 하나의 Vol. 49

www.plankorea.or.kr

나 우리



‘또 하나의 나 우리’는 플랜코리아가 전하는 아이들의 소중한 꿈입니다.

플랜은 73년 전통의 국제아동후원단체로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기구입니다. 세계 최대 개발원조단체인 플랜은 비종교, 비정치, 비정부의 국제기구로서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1개국을 후원국으로 하여 전세계 48개국 150만 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CONTENTS

- 02 행복을 주는 사람 • 가수 김종진
- 04 지구촌을 간다 • 플랜코리아 박계홍 부장
- 08 플랜캠페인 • **Because I am a Girl**
- 10 플랜, 세계를 걷어간다 • 방글라데시
- 11 THE 좋은 선물 • THE 좋은 편지
- 12 긴급구호뉴스
- 14 나눔의 행복 • 삼성물산 - 글로벌 기업, 글로벌 사회공헌
- 16 우리는 플랜가족 • 후원자 김진미 · 민나미
- 18 알려드립니다
• 후원금 관련 소식 / 플랜 후원 지역 방문 신청 및 안내

플랜 NEWS

- 19 플랜코리아 소식
- 20 플랜 지구촌 소식
- 21 플랜과 함께하는 분들
• 모금함, 특별후원금, 특별후원자, 신규 어린이 후원자



지구촌을 간다

김중만의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찍어온 사진과 영상은 12월 22일부터 네이버 갤러리 N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글 : 플랜코리아 박제홍 부장〉

처음 김중만 작가로부터 아프리카 촬영에 관한 계획을 들었을 때 과연 이 프로젝트가 가능할까 의심했었다. 거의 20일간을 아프리카에 머물면서 아프리카의 참모습을 체험하는 프로젝트이긴 했으나, 보건, 의료, 음악공연, 사진, 촬영, 연예인, 화보, 마술, 축구라는 단어와 아프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의 원주민, 아프리카의 자연을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았었다.

삼성전자의 도움으로 실제로 아프리카 케냐를 향하는 날짜가 다가오자 그 동안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실현 가능하게 되었음을 생각하며 신기하기도 했고, 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공항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같은 느낌이었던 듯하다. 고려대의료팀, 봄,여름,가을,겨울의 김종진씨, 마술가 이은결씨, 그리고 김중만 작가님과 사진 촬영팀은 물론, 영상팀과 플랜코리아 등 총 20여명의 인원엔, 나중에 합류하게 될 신에 걸그룹 f(x)까지 포함하면 총 30명이 되는 대규모 방문단이 꾸려진 것이다.

약 15시간 만에 도착한 나이로비.. 아프리카의 도시이긴 하지만 새벽 시간에, 또 고지대라 시원한 바람이 불어 우리의 가을날씨 같았다. 청명한 하늘이 무척 인상적인 새벽의 아프리카였다.

숙소에 짐을 풀 일행은 내일부터 시작될 촬영 준비에 여념이 없다. 테이프나 필름을 챙기고, 마술도구와 악기를 점검하고, 의료 장비와 약품을 담은 손길에 저마다 아프리카를 대하는 마음을 함께 담고 있으리라..

다음날 새벽부터 우리는 마사이마라 국립공원을 향해 출발했다. 중간에 타렉이라는 곳을 들러 현지의 병원을 방문하여 환자도 만나볼 계획이다. 환자들은 동양에서 온 낯선 사람들을 보고 약간은 어리둥절해했지만 이 어색함은

한 재주 많은 남자에 의해 그 벽이 허물어졌다. 바로 이 인기남은 마술가 이은결씨였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별 소품없이 하는 간단한 마술이었지만 이들에게는 마술 공연이 처음인지 처음에는 결눈질로만 살피다가 이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주변을 뺨 두르게 되었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함성, 웃음, 어린아이들의 호기심 가득한 눈.. 피부도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마술이라는 훌륭한 도구에 의해 이미 처음의 어색함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사이마라에

도착해서는 본격적인 의료 활동이 시작되었다. 수년간 몽고의 야전에서 수술을 했었다는 고대의료팀의 박과장님은 단연 마사이들에게 최고의 스타였다. 수년간 간단한 병이지만 수술을 받지 못해 고통 받던 사람들, 병원에만 가면 나올 수 있는 병이지만 병원에 가지 못해 병을 키워왔던 사람들이 고대의료팀에 의해 치료를 받고, 간단한 수술을 받기 시작했다.

연신 고마워하며 약을 타가는 아이의 엄마, 몇 년간 고통

스러웠던 종기를 제거하고 붓대를 감고 웃으면서 가는 젊은 청년, 드러난 환부에 약을 바르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지만 신뢰 가득한 눈길로 쳐다보는 할머니..

원래 마사이족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뚝뚝한 사람들이며, 또 국립공원 지역 내에서는 워낙 많은 나라에서 봉사활동을 오기 때문에 외부의 이런 활동에 조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고대의료팀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에는 그들도 눈물을 흘렸고, 감격하기 시작했다. 우리를 안내해 준 현지 분들이 마사이에게 이렇게 감사인사를 받아보는 게 처음이라며, 놀라워했다.

한쪽에서는 김종진씨의 신나는 음악회가 열리고 있었다. 현지 마사이 사람들과 함께 타악기를 연주하며 아프리카의 비트에 흠뻑 빠져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흥에 겨운 많은 마사이족이 춤을 추며 이들의 음악에 화답하고 있었다. 이 모든 장면들을 열심히 카메라의 앵글에 담고 있는 김종만 작가님 역시 얼굴에 맺히는 땀방울에서 이들 모두가 정말 자신의 자리에서 최고의 프로임을 실감하게 하는 장면이었다.

여칠간

계속되는 의료 봉사, 음악회, 마술 공연에 또 인근 학교에 축구 골대를 세워주기도 했고, 준비해간 축구화며, 운동복을 나누어 주고 함께 축구를 하기도 했다. 이미 처음의 어색함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여러 가지 몸을 부딪히며 생기는 친밀감과 일체감에 어느덧 우리 모두가 아프리카의 일부분이 되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다시 나이로비에 돌아온 우리들은 플랜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인 마차스코 지역을 방문했다. 이곳에는 김종만 작가님이 후원하고 있는 아동이 살고 있으며, 또



플랜에서

운영하는 커다란 학교가 있었다. 그리고 플랜의 후원자인 맹주연 후원자의 아동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축구공대를 세우고 준비해간 용품을 나누어 주었을 뿐 아니라 김중만 작가의 아동과 맹주연 후원자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였다.

이들이 준비해간 선물을 건네면서 주고 받은 그 눈길을 나는 잊을 수 없다. 쌍둥이인 두 아동이 김중만 작가를 바라보는 눈길은 후원자를 만난 것 이상의 무엇이 있었다. 이 아이들은 이 동네의 최고 스타가 된 것이고, 저 먼 나라의 후원자가 나를 만나러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그 아이는 삶에서 큰 자신감을 얻었으리라 확신한다.

또 하나의 감동적인 일은 맹주연 후원자와 후원 아동의 전화통화였다. 영어가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통화가 수월할 수 있었다. 연신 감사를 표하며 눈물을 흘리는 아이의 어머니, 아직은 수줍어서 얘기를 듣고만 있지만 얼굴 가득히 미소를 지으며, 후원자가 보내준 선물을 가슴에 꼭 안고 있는 아이.. 내가 후원하고 있는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 아이의 표정에서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도 자랑스럽게 생각되어졌다.

이곳에서의 최고 스타는 역시 이은결씨였다. 처음 마술을 본 어린아이들은 이은결씨가 마치 외계인이라도 되는 듯이 경계하고 두려워하더니, 차차 이은결씨의 마술에 빠져들었다. 아이들 뿐이 아니었다. 주변의 동네주민들은 모두 모인 듯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은결씨의 걸음걸음에 따라 움직였고, 그의 손동작에, 우스꽝스러운 표정에 열광하였다.



세상에는 입으로 하는 언어 뿐 아니라 마술이라는 언어,
음악이라는 언어, 그리고 춤이라는, 사진이라는 언어가 있어
이 언어들이 우리를 소통하게 하고 공감하게 하고 함께 웃게 하였던 것이다.

일정때문에 아쉽게 떠난 고대의료팀과 김종진씨 대신 요즘 최고의 걸그룹인 f(x)를 새로운 식구로 맞이한 우리는 마지막 방문지인 암보셀리로 향했다. 암보셀리 국립공원은 예전 같으면 많은 동물들로 가득했어야 할 곳이지만 최근 3년간 동부 아프리카에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그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실제 암보셀리의 초원은 가뭄으로 사막화되고 있었으며, 곳곳에서 동물들의 사체가 널려 있을 정도로 가뭄이 심각했다. 내가 쓰고 있는 물 한방울이 그들의 몫인 것 같아 죄책감이 들 정도였다.



암보셀리에서는 f(x)의 화보 촬영과 이전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골대를 세우고 운동용품을 나누어주는 활동을 펼쳤다. 이곳에서도 이은결씨의 인기는 대단했으며, 아프리카 아이들은 처음 본 f(x)지만 인기 스타는 어디를 가도 인기 스타일 수 밖에 없는지 이들 아름다운 소녀들 주변에는 항상 까만 눈동자의 어린아이들이 모여들었다. 노래를 가르치고 춤을 함께 추는 어린 f(x) 소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외모보다도 훨씬 빛났다.

모래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좋지 않아 킬리만자로의 정상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모래속에서 축구를 하며 함께 웃고 즐기는 사이, 너와 나라는 개념은 이미 사라지고 우리라는 유대감만 남았을 뿐이었다.

이렇게 17박 18일의 아프리카 대장정은 마감되었다. 처음에는 길게만 느껴졌던 일정이었지만 이미 우리는

아프리카의 일부분이 되어 있었고, 피곤하기도 하고 힘에 부치기도 했지만 가슴 한 편에 뿌듯이 밀려오는 감격이 있었던 시간이었다. 세상에는 입으로 하는 언어 뿐 아니라 마술이라는 언어, 음악이라는 언어, 그리고 춤이라는, 사진이라는 언어가 있어 이 언어들이 우리를 소통하게 하고 공감하게 하고 함께 웃게 하였던 것이다.

한 달이 훌쩍 지난 지금도 나를 바라보던 그 아이들의 눈빛, 모래 바람 속의 킬리만자로, 내 숙소 앞의 원숭이 모자, 식당 앞을 지나가던 큰 코끼리며, 끝없이 계속되던 초원이 생생하게 생각한다.

또 게스트하우스에서 빨래를 대신 해주던 케냐의 농아 여인의 미소도 그럽다.

내가 플랜코리아에서 하는 일들이, 또 함께 아프리카에서 시간을 보냈던 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주변에 퍼져, 이를 통해 아프리카가 좀 더 아름다워지고, 그들의 미소가 좀 더 환하게 피어나기를 기대한다.



Because I am a Girl
제1편 출생

Because I am a Girl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을 축하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태어나자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은 당황했습니다.
나를 낳아준 엄마는 가족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내가 여자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까요?

플랜은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Because I am a Girl** 이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플랜코리아에서는 앞으로 여아의 출생, 유아기, 학령기, 성인기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차별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출생 · 낙태, 유기, 출생미등록

“신이시여, 이렇게 계속 당신의 발을 만지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에게 딸을 주지 마시옵소서. 차라리 지옥을 주시옵소서...” —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민요 중에서

아들을 낳기 위하여 태아가 여아로 감별되면 낙태를 감행하는 경우는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 연구마다 그 수치는 다양하지만 낙태로 생명을 잃는 여아의 수가 1억 명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

남아가 성장하면 부모를 봉양하는 반면, 여아는 결혼하면 끝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뿐이라는 문화 때문이다. UN의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는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파키스탄, 알제리아, 이집트, 요르단, 리비아, 모로코, 시리아, 튀니지, 터키, 카메룬, 리베리아, 마다가스카르, 세네갈 등의 국가에서 심각한 남아선호사상이 자리잡고 있음에 주목했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자 아기 100명당 여자 아기가 105명 출생되는 것이 맞으나, 남아시아, 서아시아, 중국 등지에서는 남자 아기 100명당 여자 아기의 비율이 94명 정도이다.

특히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남아를 선호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 여자아이를 낙태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2002년 중국의 한 마을에서 조사된 설문조사에서는 820명 중 300명 이상의 여성이 낙태수술을 받은 바 있으며 이 중 3분의 1은 태중의 아이가 여자아기였기 때문이었음을 고백했다. 인도에서는 매년 약 50만 명의 여아가 태중에서 낙태당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보다는 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더욱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낙태의 위험을 피해 무사히 출생한 여아들은 안전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부모로부터 유기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이다.

UN 아동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아동의 출생과 동시에 출생등록이 이루어져야 하고, 아동은 부모에 의해 양육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예를 들어보면 한 해에 유기되는 어린이는 약 1,500명이며 이 중 80%가 여아이다. 여아가 무사히 태어나더라도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뜻이다.

UNICEF에 의하면 한 해 출생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5,100만 명이다.¹⁾ 출생등록은 아동이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인정받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차 교육과 의료서비스 등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법적 기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남아와 비교하여, 여아는 특히 조혼이나 인신매매의 위험에도 노출된다.

이와 같이, 부모에게 경제적 짐만 된다는 문화권 내에서, 여아는 잉태되면서부터 낙태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며, 무사히 태어나더라도 유기될 확률이 남아보다 높다. 출생등록이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성적인 학대를 비롯하여 인권자체를 위협 받을 확률도 높아지게 된다.

- ▶ 본 내용의 자료는 플랜에서 2007년 발간한 「Because I am a Girl」에서 발췌되었습니다.
- ▶ 플랜코리아의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은 <http://www.plankorea.or.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참조: <http://www.unicef.org/newsline/2003/03fsbirthregistration.htm>

플랜, 세계를 걸어다.

플랜의 48개 수혜국은 다양한 문화와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플랜, 세계를 걸어다.' 를 통해 플랜의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의 기초 정보

국가명 :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수도 : 다카(Dhaka)
인구 : 1억 4천 4백 5십만 명 (세계 9위)
종교 : 이슬람교 89.7%, 힌두교 9.2%, 기타 1.1%
언어 : 국민의 98% 이상이 벵골어 사용



교육제도 : 초등학교 5년-중·고등학교 5년-전문대학 2년/대학교 3~4년
문맹률 : 67.6% (남성 55.7%, 여성 81.4%)
평균수명 : 약 51세 (출처: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2009.12.02)
독립기념일 : 1972. 3. 26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
시차 : 한국보다 3시간 느림 (출처: 방글라데시 한국민간문화원)

방글라데시의 영양 상태

방글라데시에서는 5세 이하 어린이들 중 하루에 240명, 1시간에 10명이 영양부족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자라서도 체중이 늘지 않고 키가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5세 이하 어린이들의 41%가 나이에 비해 저체중이고, 43%가 키가 작다고 영양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처: 2009년 8월 24일 방글라데시 일간지 프로토포 일로)

방글라데시의 교육 환경

방글라데시는 비정부 단체들이 약 95% 이상의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교육기관 중 10%에 이르는 1만여 개의 학교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16,412개 마을에는 아직도 초등학교가 없고, 이 중 1,943개 마을은 초등학교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는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플랜이 하는 일

닐파마리

- ▶ 위생교육 : 손씻기 교육
- ▶ 지역보건소 설립

하티반드하

- ▶ 아동교육 프로그램 시행
- ▶ 출생등록의 활성화
- ▶ 생계유지 프로그램 : 농업 기술 교육

북다카

- ▶ 산모 및 영아 대상 의료서비스 향상
- ▶ 청소년 직업훈련 실시
- ▶ 학용품 보급
- ▶ 교사 교육

디나지푸르

- ▶ 영유아 통합보육센터 설립
- ▶ 학습향상프로그램 실시
- ▶ 의료관리서비스 구축

방글라데시

Map showing major rivers (Ganges, Brahmaputra, Meghna) and cities (Dhaka, Comilla, Rajshahi, Chittagong).

가지푸르

- ▶ 보건소를 건설
- ▶ 소기업 대상의 소액대출
-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 박람회 진행

치리르반다리

- ▶ 영유아 보호
- ▶ 교사훈련
- ▶ 화장실 설치
- ▶ 영양관리 프로그램
- ▶ 농업기술교육
- ▶ 직업교육

남다카

- ▶ 위생시설 프로그램 : 배수시스템 설치 및 쓰레기 관리교육
- ▶ 병원설립 프로젝트 진행

다음 2010년 봄 소식지는 인도편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THE 좋은선물

로 옴소나 양 등 가족 분양사업이나 어린이센터 건립 등의 지역개발사업 모금에 동참해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후원자님과 후원자님께서 모아주신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0년에도 THE 좋은 선물은 동일하게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 THE 좋은 선물과 함께 하신 분들

- **네팔 옴소 보내기** : 오숙희, 이현진, 이지민, 김현정, 박현미, 임영진, 차준호, 신영석, 김진호, 이주홍, 김민, 정시우, 김은경, 김영아, 박학배, 심희주, 허광신, 심영철, 전시우, EUST, 신성교회(박효준), 이희웅
- **수단 양 보내기** : 안승희, 오현주, 오숙희, 이지민, 지은, 김정화, 김지연, 보성고등학교 학생부, EUST, 이희웅
- **캄보디아 어린이 도서관 짓기** : 정은희, 이다영, 이수영, 이화영, 오숙희, 김용만, 김미나, 김경민, 안정형, 육군군사법원장 대령 김진기 외 8명, 권은진, 차미화, 안정형, 김영아, 조은주, 염재봉, EUST, 보성고등학교 생활지도부, 김용균, 이희웅

| 현재까지 모금액 (2009.12.02 기준) | 10,371,940원 |
|--------------------------|-------------|
| 네팔 옴소 보내기 | 7,260,190원 |
| 수단 양 보내기 | 851,000원 |
| 캄보디아 어린이 도서관 짓기 | 2,260,750원 |

(목표 금액 : 옴소 보내기 1,300만원/양 보내기 650만원/어린이 도서관 짓기 2,600만원)

“ ‘스피치 콘테스트’ 에서 대상으로 받은 성금을 THE좋은선물에 보내고 싶어요.”

2008년 4월부터 플랜의 재택 번역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민 (대원외고) 님은 올해 여름 '앞으로 20년 후의 물 부족 문제에 대한 전망과 그 해결책' 을 주제로 열린 '청소년 미래 세계 도시 물 콘테스트' 에서 중국과 싱가포르 팀을 제치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각각 수자원관련 장관들과 석학들 앞에서 멋지게 수상 기념 발표를 한 김경민 봉사자님은 상금의 일부를 플랜코리아의 THE 좋은 선물에 기부하였습니다. 김경민님이 보내주신 고마운 소식과 성금은, 캄보디아의 어린이 도서관 내 우물 만들기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후원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편지 등 하나를 선정하여 소개해드리는 THE 좋은편지~



이번에 소개해드릴 THE 좋은 편지는 대구광역시에 살고 계신 남인숙 후원자님의 편지입니다. 최근 엘살바도르의 6세 아동 후원을 시작하신 남인숙님은 후원 아동에 대한 사랑으로 매달 빠짐없이 편지를 보내오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루 동안 얼마나 웃었니? 브렌다 야스민은 많이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 좋아서, 즐거워서만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좋은 일도 즐거운 일도 생기는 거란다.”

“걱정이 되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야. 다른 지역은 허리케인으로 피해가 크다고 하던데... 이제는 부디 비가 그쳐서 더 다치는 사람이 없어야 할 텐데... 내가 브렌다 야스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 밖에 없구나.”

후원 아동을 아끼는 마음이 묻어나는 소중한 편지를 보내주시는 남인숙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남인숙 후원자님께는 예쁜 플랜 티셔츠를, 후원 아동 브렌다 야스민에게는 스티커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후원자님께서 보내신 편지와 사진은 후원 아동에게 큰 사랑과 희망이 되어 전달됩니다. 한글 편지는 20일, 영문 편지는 25일까지 보내주세요.

긴급구호뉴스



아프리카 (Africa)

동남아시아 (Southeast Asia)



동부아프리카-
10년 이상의 가뭄과 기근으로
2,800만여 명이 고통 받아

케냐에서는 주민들이 그들의 생계수단이었던 소와 염소를 지난해에 70%나 잃어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 우간다는 가뭄뿐만 아니라, 엘니뇨로 인한 폭우와 홍수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어린이들 중에는 이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도 있다. 에티오피아는 식량부족으로 수천 명의 어린이들, 특히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의 위험에 직면해있다.

플랜은 어린이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기금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플랜코리아에서도 홈페이지(<http://www.plankorea.or.kr>)를 통하여 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중남아메리카-
홍수와 산사태로 사상자 속출**

엘살바도르에서는 6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300mm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다. 150명 이상의 사망자 및 약 15,000명의 이재민이 속출하였고, 2,000여 채의 가옥 및 24개의 다리가 파손되었다. 플랜은 15만 달러를 요청하여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하였고 타 NGO 및 지역정부와 협력하여 재난피해복구에 힘쓰고 있다.

한편, 메라라, 팔메라, 세르코 데 삐에프라 지역은 지난 해 태풍으로 12명이 사망하였으나, 플랜의 재난위험 경감 훈련을 받은 결과 주민보호위원회를 발족하여 이번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처, 1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주민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다.



엘살바도르



중남아메리카 (Latin America)



필리핀

**동남아시아-
태풍, 지진으로
300만 명 이상의 이재민 발생**

필리핀과 베트남에서는 켓사나와 미리내 등의 여러 태풍으로 450명 이상의 사망자를 비롯하여 300만명이상이 부상을 당하거나 집을 잃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플랜은 필리핀과 베트남에 식료품, 음료, 담요, 임시대피소, 생필품 등의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하였고, 이 외에도 학교 복구 및 주민들을 위한 심리 사회적치료, 재난위험경감 훈련 제공 등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진도 7 이상의 자바 지진 및 수마트라 지진으로 4,5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플랜은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지역기관들과 협력하여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이재민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등 복구작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굉장히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을 위해 모금에 동참해주세요.
계좌번호 : 국민은행 815-01-0385-973 / 우리은행 581-187070-13-006 (예금주 : (재)플랜한국위원회)

나눔의 행복 / 삼성물산 글로벌 기업, 글로벌 사회공헌



“딸아이가 에티오피아 어린이 사진을 보고 자신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 뿌듯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도움으로 어린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영양식을 먹고 예방접종도 받는다니 작은 도움이 큰 기쁨이 된 셈이죠.”

삼성물산 박윤갑 차장(기획실 기획파트) 가족은 지난 9월에 ‘플랜코리아’를 통해 과테말라,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아이들과 ‘1:1 결연’을 맺었다. 박차장 가족은 경제적 후원, 편지 교환 등을 통해서 빈민국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사회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전한다.



42개국 92개 거점에 이르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세계에서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삼성물산**은 종합상사의 특성을 살려 저개발국 아동중심 빈곤 퇴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해외 어린이 후원 활동을 위해 지난 9월에 세계적인 국제 아동 후원 단체인 ‘**플랜코리아(Plan Korea)**’와 ‘**저개발국 해외 어린이 1:1 결연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로 삼성물산 임직원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지역의 48개 저개발국 어린이들과 **1:1 결연**을 맺고, **경제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편지 교환,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윤갑 차장의 경우처럼 가족이 후원에 참여하는 임직원, 2명 이상 후원하는 임직원도 있으며 해외 주재원들의 참여도가 특히 높다.





삼성물산과 플랜코리아의 지구촌 어린이 희망결연 후원 협약식

이외에도 삼성물산은 지난 2006년부터 사회적으로 소외된 혼혈아동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혼혈아동 장학사업 및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 2006년에 펄빅 인터내셔널과 지원 협정식을 갖고 매월 생활이 어려운 70여명의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생활지원 장학금을 전달하고, '어린이 날'과 '여름 캠프'에 프로그램 진행비와 자원 봉사자를 지원해 아이들의 사회 정서 함양을 돕고 있다. 또한 지성하 사장이 직접 혼혈아동들과 미술관 관람 및 사육 초청행사를 갖고 어린이들의 미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한편, 지성하 사장은 지난 6월 예전 경련에서 주최하는 'CEO와 함께하는 Happy Dinner'에 혼혈·다문화 청소년들과 함께 최초로 참가하여 예술의 전당에서 청소년음악회를 감상하고 15년 후의

자신들의 꿈을 적는 타임 캡슐을 만드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한 삼성물산은 1990년 부터 나라꽃 무궁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무궁화 식수 행사, 묘목배포, 무궁화 연구회, 무궁화 전시회 등 무궁화 사랑운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으며 지난 2004년부터는 충북 진천군 백곡면 9개리 25개 마을과 자매 결연을 맺고 일손 돕기 자원봉사,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낙후시설 보수 지원, 빈곤층 가구 돕기 등 다양한 지원활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삼성물산은 사업부 및 부서별로 봉사팀을 구성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결연을 맺고 주기적으로 방문해, 급식 봉사, 생필품 지원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75년부터 9공수 특전여단 귀성부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부대 창설 기념 체육대회 후원, 무궁화 묘목 기증, 경영진 부대 방문 등 상호 교류활동도 펼치고 있다.



Plan Family Interview

후원자 김진미·민나미

활발함이 매력적인 김진미 님과 수줍음이 인상적인 민나미 님,
다른 듯 보이는 25년지기 두 친구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2008년 10월부터 플랜의 후원자로 아이티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는 것.
직장을 다니며 10년 전부터 흥대 앞에서 인디밴드, '프레세페' 로 활동하고 있는 두 후원자님을 만나보았다.

1. 아동후원을 어떻게 결심하게 되셨나요?

나미: 후원에 대한 생각만 계속 갖고 있다가 진미의 소개로 하게 되었어요.

진미: 나미랑은 죽마고우예요. 학생일 때부터 후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해외아동결연이 있는 줄은 몰랐었고, 국내후원만 줄곧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생이다보니 생각만 하고 계속 미뤄지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다 해외아동을 후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플랜을 알게 되었죠.

2. 플랜을 통해 후원을 결심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진미: 플랜은 비종교 단체라는 점이 좋았어요. 종교단체다 보면, 도와줄 수 있는 국가가 한정될 수도 있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국가를 도울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인 것 같아요.

3. 어떻게 함께 후원을 결심하게 되셨나요?

진미: 예전부터 나미랑 같이 하고 싶었던 것이 국내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다니면서 음악도 들려주면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는 것이었어요. 봉사활동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가 플랜을 알게 된거죠. 그래서 나미에게 알려줬어요.

나미: 평소에 후원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진미가 알려줬을 때 부담이 된다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된거죠.

4. 같이 후원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었나요?

나미: 후원아동에게 편지를 보낼 때, 스티커도 준비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즐거워요.

진미: 저도 나미 말처럼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 좋아요. 제가 아동 자료를 처음 받아 보게 되었을 때, 떨어져 봉투를 열어보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이후로는 다른 국가의 소외아동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었구요.

5. 후원하고 계신 아동의 소개도 해주세요.

진미: 무엇보다도 아이가 취향이 저랑 비슷해요. 편지에서 아이 취미가 노래 부르고와 그림 그리기 라는 거예요. 정말 기뻐요. 아이티와 한국의 시간 차이도 알아놔서 지금 이때 쯤이면 뭘 하고 있겠구나 상상도 해보곤 해요. "우리 딸"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나의 어린 꼬마친구"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나이 차이는 많더라도 아이의 친구처럼 되고 싶어요.

나미: 아이의 사진을 보면 꽤 뽀뽀하게 생겼어요. 잘 생기고...

진미: 아, 제가 후원하는 아이는 패션 감각이 뛰어난 것 같아요. 옷이나 헤어스타일을 보면 엄마 솜씨가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6. 아동의 서신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나미: 지금까지 2번 서신을 받았는데, 설레이기도 하고 기대도 되었어요. 하지만, 그 중 하나의 원본이 사라져서 너무 마음이 아팠죠. 아이가 아직 어려서 직접 편지를 써주지는 못해요. 그래도 작은 바람이 있다면 아이의 그림을 받아봤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더 알아가고 싶어요.

진미: 아이가 그림 그리는 것과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 기뻐서 나미에게 자랑도 했어요. 저도 아이가 그려준 그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후원자 커뮤니티에서 아이의 그림을 받았다는 후원자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혹시 아이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알게 된다면, 편지지 색도 맞춰서 보내주고 할 계획이에요.

7. 자주 편지를 보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나미: 처음에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진미: 아이에게 줄 선물은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는데 보내는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5월에 선물정책이 변경된다는 플랜의 공지를 보게 되었어요. 선물을 받는 아이들은 별로 되지 않아서 선물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이 편지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기다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후원하는 아이에게도 미안함이 생겨서 그 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정책이 바뀌기 전에 얼른 보내고, 그 후부터는 꼬박꼬박 편지를 보내게 되었어요.

8. 후원을 하시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나미: 제 꿈에 진미가 후원하는 아이가 성장해서 가족과 함께 나타났어요. 그것도 아이를 안고서 말이예요. 제가 후원하는 아이는 아직 꿈에 나오지 않았지만...

진미: 저는 제가 후원하는 아이의 꿈을 몇 번 꿰는데, 아이가 한국에 와서 만나는 꿈이었어요. 꿈 속에서 아이가 한국말을 아주 잘했어요.

9. 마지막으로, 후원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후원자로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다면 말씀해주세요.

나미: 사실 후원금액이 아주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막상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마음만 갖고 있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굉장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미: 먼저,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후원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국내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시설도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이던 국외이던 돕는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후원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일시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음이 있어도 단체를 알지 못해서 후원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홍보도 더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알려드립니다



후원금 관련 소식입니다.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하세요.

12월 16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내년부터는 우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우편 발송을 지양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에서 PDF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후원자님께서서는 플랜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로 납부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려요.

지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보시면, 보내주시는 후원금 중 **약 500원(1년에 6,000원)**의 금액이 지로용지 및 우편발송 비용으로 소모됩니다.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금에서 빠져나가는 소모비용을 절감하여 아동에게 조금이나마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로납부에서 **자동이체** 또는 **카드결제**로 후원금 납부방법을 변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02-790-5436, kno@plankorea.or.kr



플랜 후원 지역 방문

플랜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 동안 혼자 아동 방문하기를 망설이셨던 분들, 플랜의 활동을 직접 보고 싶으셨던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방문기간 : 2010. 2. 22(월) ~ 2010. 2. 26(금) 4박5일
- ◆ 방문지역 : 베트남 하노이 및 타이 응웬 지역 사무소
- ◆ 모집인원 : 10명
- ◆ 모집기간 : 2009년 12월 16일 (수)~선착순 마감
- ◆ 활동내용 : 베트남 본부 및 타이 응웬 지역 사무소 방문, 후원 아동 및 아동이 사는 마을 방문, 프로젝트 참여 및 문화 체험, 지역 명소 관광
- ◆ 예상소요예산 : 약 90만원
(항공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프로그램 진행비, 여행자 보험료 등 일체 포함)
* 환율 및 현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홈페이지 자료실 다운로드 가능) 작성 후
여권 스캔본과 함께 이메일로 접수 (E-mail : kno@plankorea.or.kr)
- ◆ 문 의 : 02-790-5436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plankorea.or.kr)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세요.

플랜코리아 소식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화이트밴드 행사, 성황리에 마쳐

UN에서 지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 인 10월 17일,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는 소녀시대와 함께 '우리 함께 걸어요' 라는 이름으로 걷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국립극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시민들은 남산을 걸으며 기부에 동참하였다. 또한 플랜코리아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하루 얼마만큼의 물을 길어야 하는지 등을 시민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지구촌 빈곤 어린이들에게 희망 메시지를 전하는 등 기부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세인트 에피엔스, 지구촌 빈곤 여자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행사 마련

주얼리 브랜드인 세인트 에피엔스는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빈곤국 여자 어린이들을 후원하기 위한 특별 초대전을 가졌다. 세인트 에피엔스는 이번 행사를 통한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플랜코리아에 기부하여 빈곤과 차별로 고통 받는 여자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특별히 행사기간에 플랜코리아 홍보대사인 텔런트 김성령과 최정원이 참여하여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의 상징인 분홍색 리본을 시민들의 손목에 묶어주며 빈곤국 여자 어린이들에 대한 후원을 호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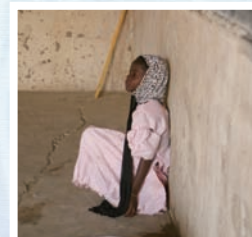
사진작가 김동만과 신에 걸그룹 f(x),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에 앞장서

플랜코리아 홍보대사이자 세계적인 사진작가 김동만과 신에 걸그룹 f(x)는 12월 1일부터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질병에 고통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네이버 해피에너지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기부된 금액은 전액 플랜코리아에 기부되어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된다.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하는 'Because I am a Girl' 기획특집

12월 2일부터 플랜코리아는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제3세계 소녀들의 네 가지 이야기 - Because I am a Girl' 기획특집을 펼친다. 기획특집을 통해 빈곤국에 살면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여자 어린이라는 이유로 이중적인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는 소녀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이번 기획특집과 연동된 해피빈 모금함의 기부금은 플랜코리아를 통해 빈곤국 여자 어린이들을 돕는 데에 사용될 예정이다.



플랜 지구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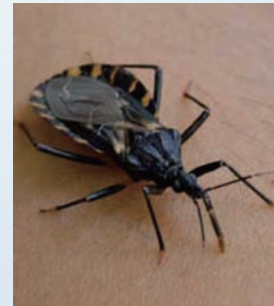
클린턴, 아프리카 소녀들을 위한 플랜의 프로젝트를 지지하다

미국의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이 뉴욕에서 열린 제5회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 (CGI) 연례회의에서 플랜USA의 플랜 미디어 프로젝트를 특별히 인정하였다. 플랜 미디어 프로젝트는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의 일부로, 서아프리카 소녀들에게 미디어 제작 및 언론 기술 교육을 제공하여 직업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언론 보도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성차별을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성들에 초점을 맞춘 플랜의 「Because I am a Girl」의 세 번째 보고서도 동시에 명예를 수여받았다.



볼리비아 모호꼬야 시, 샤가스 병에서 해방되다

볼리비아 모호꼬야 시가 플랜의 7년간의 샤가스병 관리 사업으로 샤가스 병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졌다. 샤가스 병은 소위 '키싱 버그 (kissing bug)' 라고 불리는 특정 벌레에 물림으로써 발병되는데, 초기에는 그 증상이 가벼울 수 있지만 내버려두면 심장병이나 소화기관의 변형과 같은 심각한 만성적 질병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죽음에도 이를 수 있게 된다. 이 병은 북남미주를 통틀어 18개국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매해 약 2만 명이 이 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플랜은 질병 억제를 위하여 모호꼬야 시민들에게 주택환경 개선 및 감독, 의학적 치료, 교육을 실시하여 모호꼬야 시의 샤가스 병 퇴치에 앞장서 성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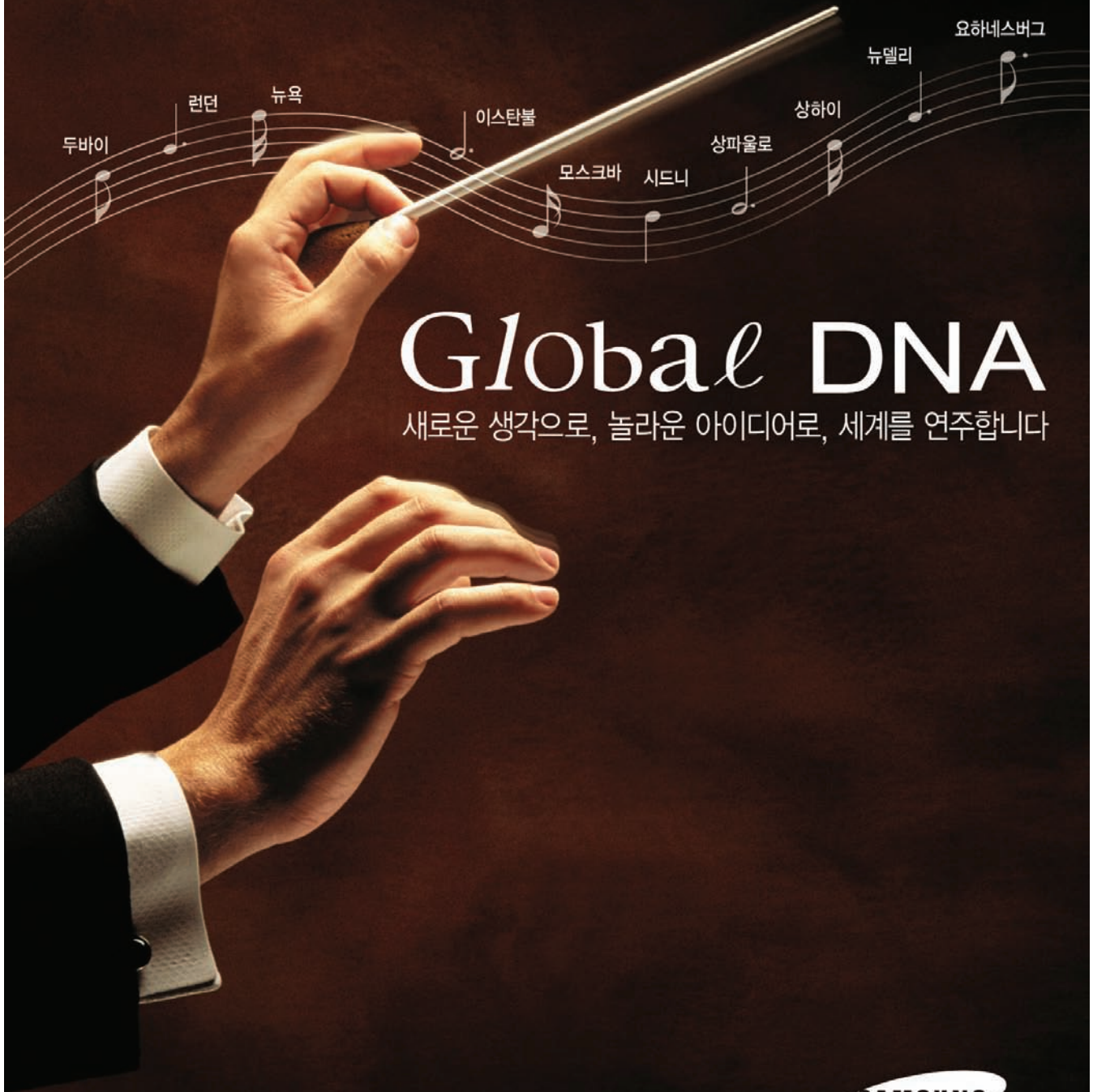


말라위 아동, 아동 노동과 니코틴 중독으로 이통으로 고통받다

담뱃잎을 채집하고 있는 말라위 아동들이 심각한 니코틴 중독에 노출되어 있음이 플랜의 보고서를 통하여 드러났다. 아동들은 가족의 생계비와 학비를 벌기 위하여 시간당 1펜스 정도의 적은 수당으로 길게는 하루에 12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있다. 노동을 하고 있는 아동들은 심한 두통, 복통, 근력 약화, 기침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플랜은 아동들의 빈곤한 현실을 고려하여 담배 회사와 재배지의 노동조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말라위 정부가 아동 노동 및 보호법을 철저히 지킬 것을 종용하고 있다.



우리의 대표브랜드 - 삼성



Global DNA

새로운 생각으로, 놀라운 아이디어로, 세계를 연주합니다

창의와 열정으로 최고에 도전하는 “글로벌 가치 창조 기업” 삼성물산



삼성물산